

독일 최대의 전력회사 E.ON사, 송전선과 발전설비 일부 매각 제안

독일 최대의 전력회사인 E.ON사는 2008년 2월 28일, EU의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송전선과 발전설비(480만kW)의 매각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송전선의 매각 상대는 발전부문과 공급부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로 되어 있다. 한 정보에 의하면, 영국의 송전계통운영자인 내셔널 그리드 사나 또는 이탈리아의 송전계통운영자인 테르나 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계약을 하게 된 배경에는, 유럽위원회에 의하여 E.ON사가 도매전력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하여 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E.ON사의 제안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중단할 것인지는 EU 경쟁법을 참조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1. 자주적인 조치를 제안한 배경

독일에서는 4개의 대(大) 전력회사(E.ON사, RWE사, EnBW사, Vattenfall Europe사)의 발전설비용량이 총발전 설비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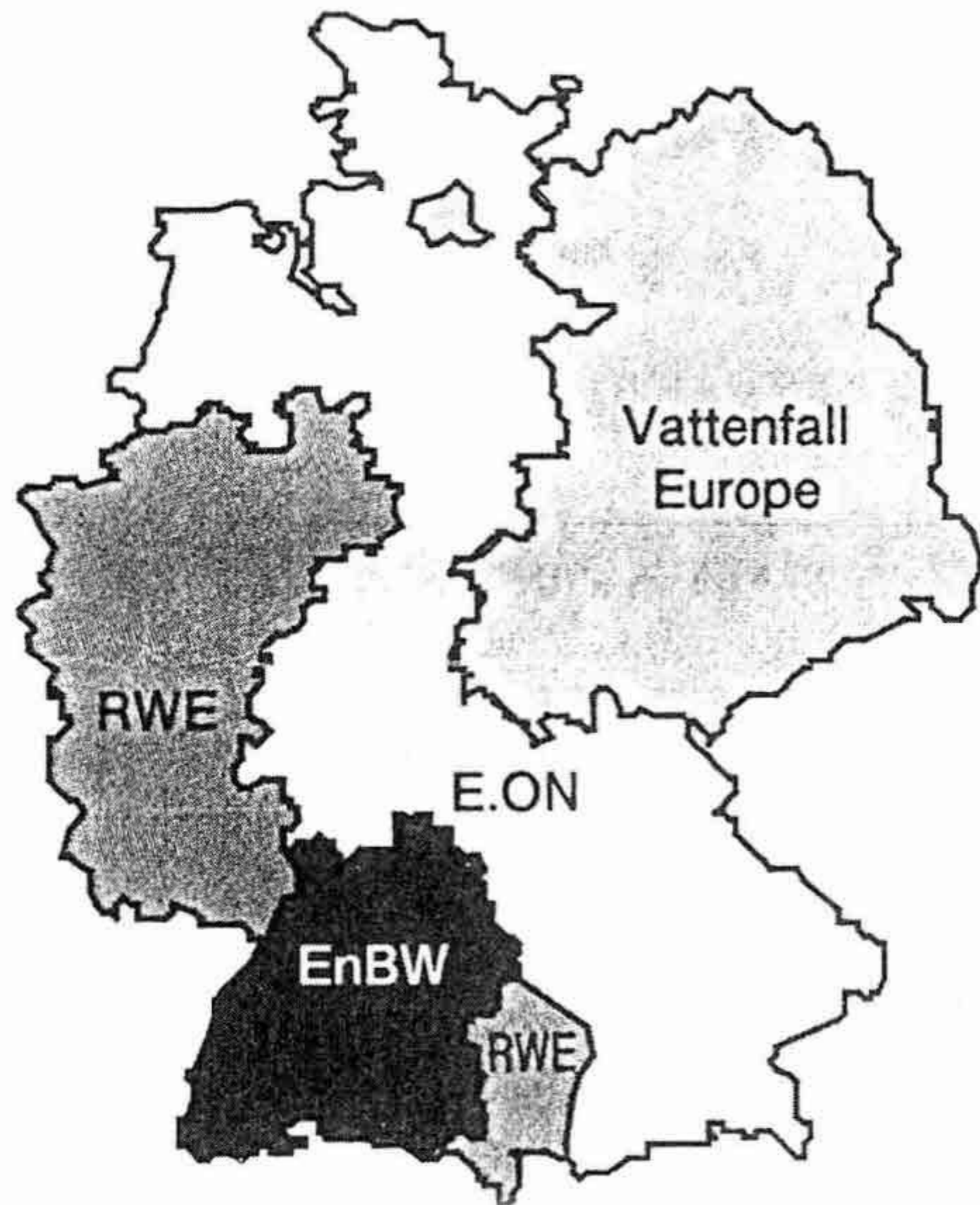
이 중에서 E.ON사는 독일 국내에서 최대규모인 3,450만 kW의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와 같이 전력시장의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대 전력회

사의 시장지배력을 전부터 적잖이 문제시하여 왔다. 유럽위원회가 2007년 1월에 발표한 EU 각국의 전력시장에 대한 논평에서, 독일에서는 대 전력의 수직통합화한 사업 형태와 그리고 독점화한 도매전력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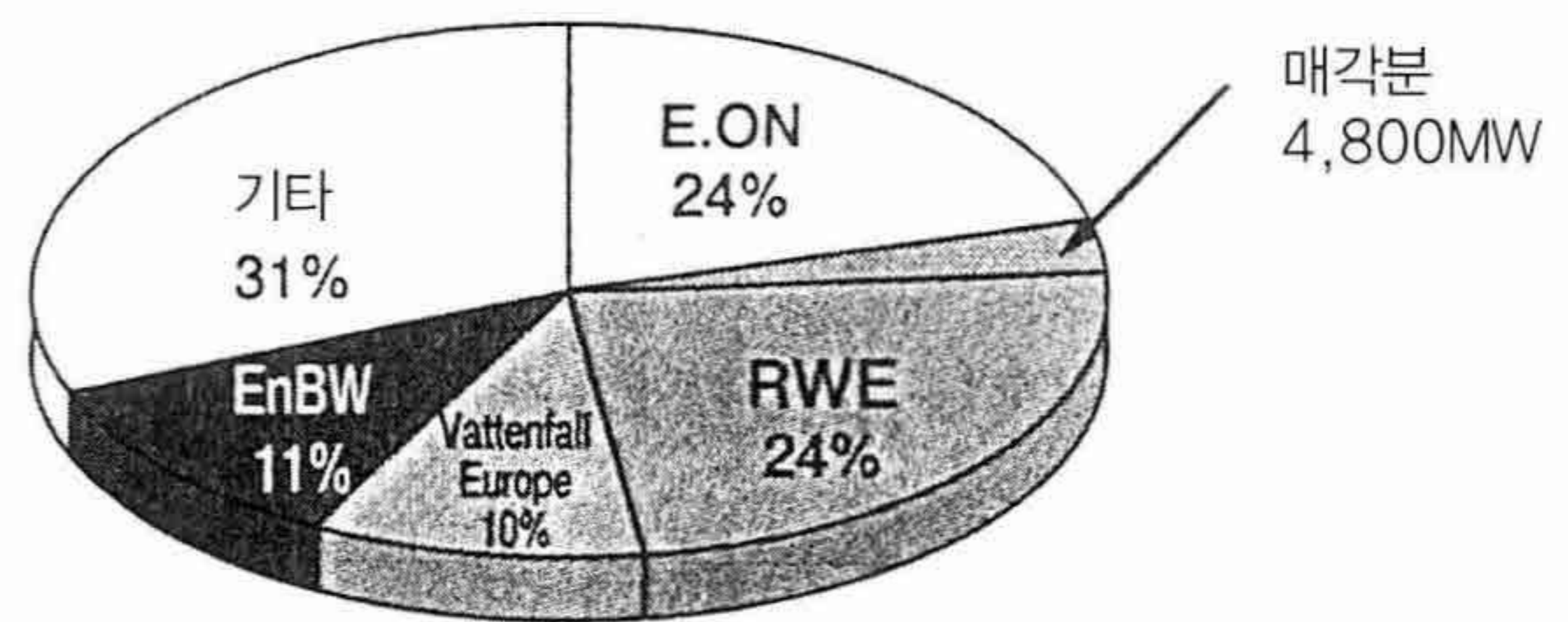
유럽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도 취하고 있다. 2006년에는 유럽에너지거래소(EEX:라이프치히 시에 있는 전력거래소, 이외에 배출권의 거래 등도 시행함)의 거래로, 4대 전력회사가 부당하게 전력가격을 인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E.ON사를 포함한 4대 전력회사를 수색하여 관계서류도 압수하고 있다. 현재도 이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2008년 1월에는 E.ON사는 이 건에 관한 서류인멸 혐의로 EU로부터 3,800만 유로의 벌금 지불 명령을 받고 있다.

E.ON사가 이번에 자주적으로 설비 매각을 제안하게 된 것은 전력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조치를 스스로 자진해서 나타내어 EU에 의한 제재금(벌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E.ON사의 제안을 EU경쟁법의 이사회 규칙(1/2003호) 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확약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1〉 4대 전력회사의 송전계통 운용구역



〈그림2〉 4대 전력회사의 발전 설비 점유율



E.ON사	34,500MW
RWE사	33,152MW
Vattenfall Europe사	13,300MW
EnBW	14,811MW
기타	43,776MW
계	139,539MW

2. 관계자의 반응

2008년 2월말의 보도에서는 E.ON사를 제외한 독일의 대 전력회사 3개사는 E.ON사의 제안에 따라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전선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RWE사는 「공급안정성 때문에」라고 하는 한편 EnBW사는 「경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라고, 각각의 홍보 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Vattenfall Europe사는 「모든 선택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구성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송전선의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E.ON사의 베르노타트 사장은 2008년 3월 18일자 독일 경제지에서, 독일 국내의 송전계통은 한 회사에서 통괄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다. 지금까지 독일의 송전계통은 E.ON사를 포함한 4개 대 전력회사에 의하여 각기 소유, 운전되고 있다. 그러나 베르노타트 사장에 의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모양이 아니며,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송전계통의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송전계통을 일원적으로 통괄하는 송전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RWE사는 자사의 송전계통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등 여러 나라를 통합하는 광역송전회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일본 「전기협회보」